

한-미 FTA 추진 현황과 기대효과

홍지인
북미·구주통상심의관
외교통상부

1. 우리 정부의 FTA 추진 현황

가. 추진 방향 및 전략

□ 추진 방법 : 동시다발적 FTA 추진

- FTA 체결진도를 단기간 내에 만회하여 우리 기업들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, 각 FTA별로 서로 다른 효과를 상호 상쇄·보완

□ 지향점 : 거대·선진 경제권 및 신흥유망시장과의 FTA 추진

- 우리 경제의 선진화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대·선진 경제권과의 FTA 체결
- 브라질, 인도 등 신흥유망시장과의 FTA 추진도 병행

□ 추진 내용 :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목표로 하되,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실리적 접근

- 상품 분야뿐만 아니라, 서비스, 투자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지향하는 한편,
- 신흥시장과의 주요 상품의 시장 확보에 주력하는 유연한 접근

□ 추진 기반 :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FTA 추진

- “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(대통령훈령)” 제정 및 시행을 통해 FTA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고



상기 전략에 따라 20여개 국가들과 동시다발적으로 협상 또는 공동연구 진행 중[FTA추진 로드맵]

나.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

□ 2004. 4월 한-칠레 FTA 발효, 2005. 8월 한-싱가포르 FTA 서명(12월 국회비준), 2005. 12월 한-유럽자유무역연합(EFTA)* FTA 서명

* 스위스, 노르웨이, 아이슬란드, 리히텐슈타인

□ 현재 ASEAN·일본·캐나다 등과 FTA 협상 중

- ASEAN과 2005. 12월 기본협정 서명, 금년 상반기내 상품분야 협상 타결 추진
- 캐나다와 2005. 7월 공식협상을 개시, 2005. 12월 제3차 협상 개최
- 멕시코와 2005. 9월 전략적 경제보완 협정

(SECA : Strategic Economic Com-
plementation Agreement) 협상 개시 합의

- 일본과는 2003. 12월 협상 개시, 6차례 협상을 개최하였으나 일 측이 너무 낮은 농수산물 양허계획을 제시해와 현재 협상 중단 상태

- 우리 측은 2004. 12월 한-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“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”체결 추진

- 인도와 2006. 1월 CEPA (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) 공동연구 완료, 조만간 정식협상 개시 준비

□ 남미 공동시장 등과 공동연구 진행중

- 남미공동시장 (MERCOSUR)*과는 2005. 5월 공동연구 개시

* 브라질, 아르헨티나, 파라과이, 우루과이

- 기타 한-중, 한-중-일 FTA 민간공동연구 진행 중

2. 한-미 FTA 추진 경과

- 2004년 하반기 이후 「동시다발적 FTA 정책」의 지향점으로 미국과의 FTA 체결 추진
- 2004. 11월 한-미 통상장관회담(칠레)에서 양국은 FTA 추진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정부간 예비협의 개시에 합의
- 2005. 2~4월간 3차에 걸쳐 FTA협상출범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양해 하에 사전실무 점검회의 개최
 - 상대국의 FTA 추진정책, 상대국이 제3국과 체결한 FTA 협정문 내용 검토 등
- 이후 6차례의 통상장관회담 개최를 통해 한-미 FTA 출범 가능성 모색

- 통상교섭본부장은 2005. 7월, 9월 미 의회 및 업계를 상대로 한-미 FTA지지 확보 노력 전개

- 2005. 9월 한-미 FTA 체결 필요성에 대한 양국간 공감대 형성

○ 미 행정부는 2005. 9월 한국 등 4개국*을 우선 FTA 협상대상국으로 선정

* 한국, 말레이시아, 이집트, 스위스

- 노무현 대통령은 1. 18(수) 신년연설에서 한-미 FTA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분명한 의지 표명

○ 1. 27(금) FTA 민간자문회의 개최

- 민간자문위원들은 한-미 FTA 추진 필요성에 동의

- 다만, 일부 민감 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지적

3. 한-미 FTA 추진 필요성

- 한-미 FTA 체결시 상당한 경제적 이익 예상
-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13조9천억원(1.99%), 대미교역량 193억불 증가 및 10만4천개의 일자리 창출 전망 (2005. 12월 KIEP)
- 특히, 제조업의 경우 대미수출이 44억불 증가할 뿐만 아니라, 일본산 부품·소재를 대체하여 **대일 의존적 생산구조 극복** 계기 제공
 - *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부품소재 품목 (2004년 255억불, 전체의 28%)이 FTA 이후 대미 수입이 예상되는 부품소재 품목과 대부분 중복
- 농업·서비스 등 일부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들은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

것으로 예상

- 대미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고, 이에 따라 우리 농가에 다소간의 피해가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이나,
- 미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의 일부가 국내 농업생산 감소를 초래하기 보다는 중국 등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
- 정부는 협상을 통해 민감성이 매우 높은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장기 이행 기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예정
- 서비스 부문의 경우, 90년대 후반 유통시장 개방, 금융시장 개방의 결과 오히려 우리 서비스 산업의 체질이 개선되고 경쟁력이 크게 제고된 경험에 비추어 한-미 FTA를 통해 우리 서비스 산업의 체질이 개선되고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

□ 가시적인 경제지표 개선 외에도 상당한 “외적 가치” 창출

- 우리 경제·사회 제도 전반의 선진화와 안보 리스크 완화에 기여, 이에 따른 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투자 증가
- 또한 법률, 의료, 교육 등 선진국의 전문서비스를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“삶의 질” 제고

□ 정치안보적 측면에서도, 지난 50년간의 한-미 안보동맹 체제를 보다 호혜적·포괄적인 「경제동맹」으로 승격시키는 의미

- 동북아·미국 간 연결고리 제공으로 역내 우리 입지 강화

- 미국과 FTA 체결을 선점하여 주변국과의 경제통합 논의에서 유리한 위치 점유
- 동북아 FTA 네트워크 허브로 도약

□ 업계 및 일반 국민도 한-미 FTA 체결을 지지

- 전경련과 한국무역협회가 2004. 11월 및 12월 각각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7% 및 75%가 한-미 FTA 체결을 지지
- 한국갤럽의 2004. 12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0.4%가 한-미 FTA에 호의적

4. 한-미 FTA 추진 계획

□ 양국 국내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조기 협상 공식출범 추진

-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(대통령훈령)에 따라, 2. 2(목) 공청회를 통해 관련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FTA 협상개시 여부를 심의·결정

※ 미국은 관계부처 회의 및 의회와의 협의 필요

□ 제차 협상은 협상 공식출범 90일 후 개최 가능

- 미 무역축진권한법(TPA)상 미 의회에 협상개시 의사 통보 90일후 공식협상 가능
- 2007. 3월까지 협상 타결 추진
- ※ TPA법이 2007. 7. 1일 종료 예정인바, 3개월 전인 4. 1일까지 협상결과가 미 의회에 통보될 필요

□ 내용면에서 “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”를 추진

- 다만, 농업 및 일부 서비스 등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의 국내적 피해 최소화 및 경쟁력 제고 방안 강구